

‘시민들에게 정확한 전주시정 홍보’

시, 시청 강당서 직원 대상 언론홍보 역량강화 교육 시민들의 알 권리 증진 기대

전주시가 전주형 문화재생산업과 가장 인간적인 복지정책, 탄소산업 육성 등 우수정책과 다양한 생활정보 등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직원들의 언론홍보 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8일 시청 강당에서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 언론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주시가 추진해온 굵직굵직한 사업과 정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공무원의 언론 인터뷰와 방송 출연 등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무원의 언론홍보 실무능력 함양과 전문성을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현직 언론인인 김준희 중앙일보 기자와 함은호 KBS 전주방송총국 아나운서 강사로 초청돼 보도자료 작성법과 인터뷰 대응요령, 성공적인 방송 토론 준비 등의



지난 8일 시청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9 언론홍보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에서 김승수 시장이 언론공감과 시민소통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비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김준희 중앙일보 기사는 '기사화하고 싶은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취재 응대요령'을 주제로 본인의 실제 취재사례를 중심으로 보도자료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했다. 또, 단순 행사성 보도자료 작성을 지양하고, 전략적인 언론대응을 위해 언론을 친밀감 있게 응대할 수 있는 기법을 상세히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 함은호 KBS전주방송총국 아

나운서는 인터뷰 방법 등을 담은 인터뷰 및 토론회 준비 및 응대 요령을 딱딱한 이론위주보다는 실제 홍보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자유로운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언론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언론 대응력과 홍보 역량을 키워 시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과의 소통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다. 시는 향후에도 매년 하반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홍보 역량강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다. 구대식 전주시 공보담당관은 "언론을 통한 시정홍보는 행정과 시민이 서로 소통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며 "직원들의 홍보역량을 키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 내고, 전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팝업놀이터’에서 행복 충전

전주시, 노송광장서 운영 모험심 자극 프로그램 마련

아동친화도시 전주의 대표 관광지 시청 앞 노송광장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우는 놀이터로 재탄생했다.

전주시는 지난 8일 아이들의 창의적이고 행복한 성장을 돕는 '야호 5대 플랜'의 일환으로 시청 앞 노송광장을 '팝업놀이터'로 운영했다. 팝업놀이터는 '뺏다 사라진다는 뜻을 가진 Pop-up과 놀이터(Playground)의 합성어로, 기존 지면에 고정된 놀이터가 아닌 정해진 장소와 도구에 간섭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놀이터를 의미한다.

이번 노송광장 팝업놀이터는 시와 사회연대인 '야호놀이개동무'가 아동의 놀 권리 확보를 위해 함께 기획한 시범사업으로, 이날 노송광장은 아동의 상상력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다양한 콘텐츠가 채워진 놀이터로 탈바꿈됐다.

팝업놀이터에서는 스트러스 구조를 이용한 빗줄놀이·그물놀이·삼나무 팔레트 및 반백을 이용한 외나무다리 배개싸움·삼각목을 이용해 서로 지지해주는 상호지지구조를 만들어 건너보는 다빈치다리 등 기존의 목적 지향적 체험 및 교육위주의 놀이형태에서 탈피해 규칙이 유연하고 자유로운 아동 주도 놀이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그 결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등 아동·청소년들이 도심 속 놀이터에서 놀이를 통해 상상력과 모험심을 키우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다.

팝업놀이터에 참여 한 아동은 "평소에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시청 앞마당에서 새로운 놀이로 놀 수 있어서 더 재미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놀이터가 자주 생겼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 현재 △야호 숲놀이터 확충 △야호 책놀이터 조성 △야호 예술놀이터 조성 △전주형 창의학교 야호학교 확대 △야호 부도교육을 운영 등 '야호 5대 플랜'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시는 이번 팝업놀이터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한 후 도심 곳곳에서 팝업놀이터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놀이시간과 환경이 부족한 아이들의 놀 권리 회복을 위해 다양한 실내·실외 놀이터를 확보하는 등 아동친화적인 놀이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팝업놀이터에 참여 한 아동은 "평소에 그냥 지나치기만 했던 시청 앞마당에서 새로운 놀이로 놀 수 있어서 더 재미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놀이터가 자주 생겼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 현재 △야호 숲놀이터 확충 △야호 책놀이터 조성 △야호 예술놀이터 조성 △전주형 창의학교 야호학교 확대 △야호 부도교육을 운영 등 '야호 5대 플랜'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 요양병원서 어르신 사랑나눔 손뜨개 교실 전시회

전주시가 수제작 부흥을 기반으로 '순의 도시(핸드메이드시티)' 만들기 에 나선 가운데 전주지역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만든 손뜨개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시는 요양병원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오락적 소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어르신 사랑나눔 손뜨개교실'의 결과물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효사랑가족 요양병원 1층에서 전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능기부를 통해 운영했던 어르신 사랑나눔 손뜨개교실에서는 치매와 중풍 등으로 손놀림이 익숙지 않은 어르신 40여명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한 땀 한 땀 손뜨개질로 작품을 만들었다. 어르신들의 옛 추억을 되살리고, 즐거운 소일거리를 제공해준 손뜨개교실은 지난날 30일 마지막 수업을 마쳤다. /김윤상 기자

완산구,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제도 안내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락기)는 지난 8일 완산구청 강당에서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적절한 의료급여 사용 및 올바른 약물복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신규수급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급여 이용에 관련된 어려움을 사전에 방지하여 의료급여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자발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적절한 의료급여를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의료급여 상한일수 및 연장승인제도, 선택의료기관 제도, 적절한 약물남용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현재 완산구에서는 부정적 장기입원 대상자 사례관리,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교육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는 의료급여 복지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지역사회 지원 및 방문보건서비스 등 연계, 의료기관 및 시설 관계자 간담회 등 밀착 사례관리로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증진과 함께 의료급여비 증가를 안정시켜 나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 실시

전주시 양 구청(덕진구·완산구)가 축적소년과는 지난 8일 덕진구청 강당에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게임제공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2019년 게임제공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일반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P방) 등 관내 450여명의 게임제공업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전문지도사인 유동국 강사의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 전주완산경찰서 생활안전과 운영용 경위의 '게임제공업소 단속 사례'와 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 박강욱 주임의 '게임제공업의 소방안전 전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영업장의 법령준수를 위해 현행 법령은 물론 개정법령 등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설과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안전관리 요령, 불법 영업에



다른 단속 및 행정처분 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종평 덕진구청장은 "앞으로도 게임제공업 관련 대표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홍보와 더불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더욱 은밀하게 민연하고 있는 폐쇄포조와 환전·사행행위 조장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경찰, 2020학년도 수능 청소년 선도보호 강화

전북경찰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맞이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선도보호활동에 나선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본 수험생들의 해방감으로 인한 비행 예방과 청소년들의 음주·흡연 등 청소년 유해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계도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수능 당일인 오는 14일 시험 종료 뒤, 수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청소년 유흥지역 및 유해환경 밀집지역을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캠페인 종료 이후부터 일부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상대로 술·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서 출입·고용행위 등 유해환경 집중단속하며 수능 후 청소년 탈선 예방 및 범죄 예방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정다운 기자

전북경찰, 한미음 체육대회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입실 자율방범연합회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한미음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날 체육대회는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선진 준법정신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자율방범대원 및 대원가족이 적극 참여해 다채로운 화합의 한마당 행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자율방범대 여러분의 범죄예방 활동은 부족한 경찰력을 보충함은 물론 전북의 평온한 치안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격려와 함께 우수자를 방법 회원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조 청장은 "민·경 협력 공동체 치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입실 자율방범대는 경찰 협력 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선미촌 새 변화 앞당길 정책 방향 찾아

전주시 선미촌정비 민관협, 재구성 시즈2 비전만들기 워크숍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성매매집결지에서 인권과 문화예술의 마을로 탈바꿈중인 서노송동 선미촌의 변화를 앞당길 정책방향을 찾기로 했다.

전주시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민간위원장 조선희)는 지난 8일 여성인권센터, 도시계획전문가, 예술가, 전주시정발전연구소, 사회혁신센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주시의회 의원, 전주문화재단, 문화적도시재생사업단 인디, 선미촌 내 예술책방 '물결서사', 주민협의회,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미촌 재생사업에 참여중인 기관·단체들의 역할을 논하고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워크숍을 개최했다.

'선미촌 재구성 시즈 2 비전만들기'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은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가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점검하고, 새로운 변화 시기를 맞아 시즈2 사업방향과 목표를 정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은 선미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먼저 워크숍 1부에서는 송경숙 전북여성인권센터장이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가 걸어온 길'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2부에서는 박정원 UB 도시연구소장이 '선미촌 방향 찾기 및 민관협의회의 역할과 네트워크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선미촌 도시재생을 위한 각 기관 및 단체의 역할에 대한 심화 토론을 통해 각자의 의견을 제안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과 이슈들을 향후 선미촌정비 민관

협의회의 재정비 방향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는 지난 2014년 선미촌 정비를 위해 발족된 이후 집담회, 정책 토론회, 위원회 운영 등 총 100여회에 이르는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선미촌 걷기'와 '선미촌 정비'를 위한 대안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시민들에게 선미촌 정비의 필요성을 꾸준히 알려왔다.

그 결과 선미촌정비 민관협의회는 2015년 전국 지속발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7월에는 '선미촌 문화재생 프로젝트'가 △성평등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성매매 집결지 도시재생에 대한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을 받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지방경찰청 남원지청과 범죄피해지원센터는 최근 범죄 취약마을에 방범용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원범죄피해지원센터, 범죄예방 활동지원

전주지방경찰청 남원지청(지청장 이지형)과 범죄피해지원센터(이사장 박성주)는 최근 범죄 취약마을에 방범용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지원은 소속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성금으로 서남대학교 폐교에 따른 지역 인구공동화가 심화된 읍치마을에 방범용 CCTV 3대 등 현대적 방범시설과 장비를 지원한 것이다.

마을 이장 박병오씨는 "방범 시설과 장비 지원으로 이제는 마음 놓고 편안하게 밤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편 이지형 남원지청장은 "민간단체가 자체 성금으로 방범용 CCTV 등을 지원하는 범죄예방 사업에 선도적 참여해 주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박성주 이사장은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지원사업과 함께 범죄예방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범죄피해지원센터는 강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범죄피해자를 돕는 민간단체로, 피해자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 및 다문화가정에 비행기표를 구입해 주는 등 지역의 많은 이들을 지원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쿠션매트 훔친 50대 검거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날 18일 오후 5시경 전주시 완산구 모 판매점에 진입된 시가 6만원 상당의 쿠션매트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정다운 기자

휴대전화 훔친 40대 체포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7시 53분경 전주시 완산구 모 술집에서 테이블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정다운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ijmaeil.com에서